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⑲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7



▶한줄요약
보문은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의 '탁발'을 실천하며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엄격한 수행과 지계의 삶을 살았다.

스승의 계율과 정신 이어받은 엄격한 삶

19. 팔공산 삼성암 토굴

보문은 1948년부터 약 4년간 법주사 복천암, 도리사 태조선원, 해인사 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1953년 팔공산 중턱에 토굴을 지어 들어가기로 했다. 대처승이 살다가 떠나면서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돌과 흙을 이겨서 벽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다시 지었다.

보문은 토굴 조성과 수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탁발에 나섰는데, 여염집보다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주로 대구지역 시장을 찾았다. 보문이 청아한 음성으로 〈반야심경〉을 염송하며 탁발을 시작하면, 그 염불 소리와 삿갓 쓴 풍모에 환희심을 느낀 상인들은 발우에 지전을 올리고 스님께 합장 예배했다. 그리고 거지들까지도 스님 주위로 몰려들었다. 거지들은 바람에 날리는 지전을 주워 다시 발우에 담기도 하고, 제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보문은 토굴을 짓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시금만 남기고 나머지 보시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보문의 '탁발'은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에 명시된 것으로서, 보문이 여전히 그 정신을 받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문은 삼성암 토굴에서 자주 긴 선정에 들곤 했다. 어느 날, 서암(西庵, 1917~2003)이 보문의 토굴을 찾았는데, 보문은 선정에 들어 꼼짝하지 않았다. 서암은 보문의 뒤에 앉았다. 피곤해진 서암은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되어 일어나 보니 보문은 어젯밤과 같은 모습 그대로였다. 서암이 아침 공양으로 보리 감자밥을 지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보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보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서암이 토굴을 나서다가 돌아보니 보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암이 인사나 하고 가려고 돌아가는데, 그 사이 보문은 다시 좌복에 앉았다. 사흘째 선정에 들어간 것이었다. 서암은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수좌를 그 뒤로는 보지 못했다며 보문을 추앙했다.

보문은 선정에서 깨어나면 나무를 하거나, 채전 일을 했다. 달이 밝으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행선을 하고 게송을 읊었다. 오도의 경지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삼성암에 청정한 도인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신심 깊은 소씨 보살은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와 힘든 농사일을 하며 손자들을 키우고 있었다. 보살은 산길이 어둡지 않으면 농사일을 마치고 약 10리 쯤 되는 토굴까지 한 시간을 올라가 공양물을 몰래 올려놓고 내려가곤 했다. 그는 노태우(盧泰愚, 1932~2021)의 할머니였다.

보문은 폐의 상태가 더 나빠져 건강이 악화되자 오히려 치료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다.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오롯이 자신을 바라보고 싶었던 보문은 그 일이 육신이 다하기 전에 촌음을 아껴 절실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과연 보문이었다. 보문은 2년간 치열하게 정진하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보문은 1948년부터 약 4년간 법주사 복천암, 도리사 태조선원, 해인사 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 전경.

20. 대구의 생불과 불교 정화

어느덧 대구 불자들은 보문을 생불로 부르고 있었다. 보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보현사나 서봉사 등에서 보문이 법문하는 날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미군 병사가 보문의 사진을 찍어준 것도 이 무렵이다. 외국인에게도 보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불교 정화 운동이 시작됐다. 1954년 8월 선학원에서 전국 비구승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보문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대책위원 15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보문이 가지 않은 이유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화의 방법과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보문은 수행을 통한, 수행을 위한 불교의 정화와 개혁만을 생각했다.

보현사는 대구의 중심에 있어 이 지역 불교 정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찰이었다. 수행력이 높고 인격이 청정한 스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불교 정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비구승들이 뜻을 모았다. 보문은 경북도 종무원 종무원장이였던 한송(漢松)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보현사로 내려왔다.

21. 대구 불교의 혁신

1955년 보현사 주지로 부임한 보문은 우선 나한전 자리에 대중을 위한 시민선방을 만들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법회를 열고 법문을 했다. 법당이 모자라 마당까지 청중으로 가득했다. 보문은 청아하면서도 우렁찬 음성으로 소탈하고 간명한 사자후를 토했다.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을 평등으로 갈무리했다. 법문이 수행 기풍을 일으켰다.

토굴서 자주 긴 선정에 들어
대중 위한 시민선방도 열어
"초파일 전에 떠날 것 같다"

무슨 이유인지 법문 내용을 기록하지 않게 해서 전해지는 법문이 없다. 다만 수행을 권유하는 가사체 〈권유문〉이 전한다. 중생의 일생을 장님이 미친 말에 올라타 험한 지옥의 구렁텅이를 달리는 것에 비유했다. "그럭저럭 살다가는,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다. 한평생이 잠깐이니 분외 탐심을 내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배고플 때 밥 찾듯이 공부하라. 이생 아니면 다시 공부할 수 없고 이생에서가 아니면 죄를 면할 길도 없다. 지옥 극락 따로 없으니 현세에 극락을 만들라. 만 년 동안 불에 탄 종자도 싹이 나고 천 년 동안 마른 나무에 꽃이 다시 핀다.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을 믿고 촌음을 아껴 정진하면 지옥 같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극락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불법에 대한 믿음과 수행 정진을 고구정녕 권유하는 간곡함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22. 상좌 희섭과 은사 한암

보문은 상좌를 두지 않으려 했다. 아픈 몸으로 고단한 수행 길을 걷는 제자를 걱정한 한암이 희섭(喜燮)을 보문의 상좌로 정했다. 희섭은 한암의 뜻을 받들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보문을 시봉하기 위해 보현사로 내려왔다. 보문은 희섭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3년만 앞서 만났더라면 사람 하나 만들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제자를 지도해 견성의 길로 인도할 자신이 있는데 이미 자기 몸이 망가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한 말이면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아껴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었다.

보문은 신도를 접견할 때면 장삼을 차려입고 문이 열린 큰방으로 가서 책상 앞에 앉았다. 신도가 특별공양을 올린다고 초청해도 희섭을 대신 보냈으며, 한 시간의 시간을 주었다. 희섭이 이웃 염매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시간을 정해 주었다. 한 번은 시장에 간 희섭이 제삿밥을 먹고 가라는 신도의 강권을 이기지 못해 한 시간 늦게 돌아왔다. 보문은 "당장 오대산으로 가자!"며 걸망을 짊어지고 나섰다. 경책 차원의 시위가 아니라 한암 슬하로 정말 돌아가려 하였다. 희섭은 물론 대중들이 간곡히 잡았다. 두루 참회를 하고 빌기도 하여 겨우 걸망을 풀게 했다. 보문은 그렇게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까지 계율과 규약, 양심을 지키는 데 철저했고 한결 같았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며, 한암의 계율 존중과 언행일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엄격하고 명백하게 실천했다.

23. 회한

보문은 상원사 선원을 원융살림으로 꾸려가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봉암사 결사를 끝까지 이끌지 못해 한국불교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생애 끝자락으로 다가서면서는 불교정화운동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해야 했다. 대처승을 몰아내고 비구승이 사찰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불교 정화가 아니라 불교 망화(亡化)라고 비판했다. 불교 개혁과 정화는 어디까지나 올바른 수행의 여건을 만들고 수행 기풍을 쇄신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던 보문이 그런 식의 '불교 정화'를 인정할 수 없었다. "보문이 10년이라도 더 살았다면 한국 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뜻을 여기서 찾는다.

보문은 보현사에서의 실행을 바탕으로 하여 영남불교의 중심 본사인 동화사를 총림으로 만듦으로써 한국불교를 마지막으로 개혁하려했다. 그러나 동화사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비구니 도량으로 결정됐다. 석우, 지월과 함께한 동화사 총림 만들기 서원은 여기서 꺾였다. 보문의 육신도 가물거렸다.

24. 보살행

어느 날, 보문은 보현사 마당 구석에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다. 돌이 많아 돌을 깨뜨려가며 나무를 심었다. 보문을 무척 존경하여 잠시 곁에 와 있던 보성(菩成, 1928~2019)에게 말했다. "이 나무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나는 가련다" 한 달 뒤, 1956년 초파일 준비가 한창이던 음력 3월 29일, 보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희섭이 급히 데려온 의사가 강심제를 주사했다. 보문이 벌떡 일어나서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꾸중했다. 갈 때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초파일 이틀 전이었다. 희섭을 불렀다. 초파일 전에 떠날 것 같으니 시신의 구멍들을 잘 막아서 방 윗목에 두었다가 초파일 행사를 끝낸 뒤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 했다.

초파일이 되었는데도 주지스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도들이 결국은 보문의 입적 사실을 알았다. 초파일 행사에 온 신도들로 가득 찼던 법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동화사 다비장에서 다비를 하고 남은 뼛가루는 팔공산 곳곳에 뿌렸다. 부도탑도 세우지 않았다. 보문의 뜻이었다.

희섭이 떠나자 대구에서 보문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다. 신도들이 나서서 스승이 했던 대로 탁발을 하여 제수를 마련했다. 영단에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던 한 보살이 울먹였다. 백여 명의 보살들이 따라서 울었다. 도량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제사가 끝나자 제수를 인근 집집마다 나눠주고 보문이 탁발을 자주했던 서문시장 주변 거지들에게도 나눠주었다. 탁발금 중 남은 돈으로는 쌀과 과일을 사서 고아원과 양로원에 주었다. 그 뒤 해마다 탁발은 거듭되었다. 보문의 보살행이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외부 필자의 연재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생명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혈자리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혈자리들을 죽어라 익히고 그 자리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침술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완전 초보자분이라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